

케이스탯 2021년 3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4개월 연속 긍정/부정 팽팽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58%로 부정 평가 지속 우위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54%로 부정 우위
- _ 정부정책 만족도 : 9개월 연속 ‘만족 않는다’ 우위
- _ 정당 호감도 : 마음 드는 정당 ‘있다’ 36% vs ‘없다’ 64%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지금보다 줄어들 것’ 높아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응답 많아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57%
- _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35% vs ‘내릴 것’ 26%

■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2%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노력으로 ‘불가능’ 72%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5% vs ‘없다’ 45%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3월 5일(금) ~ 3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7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9\%$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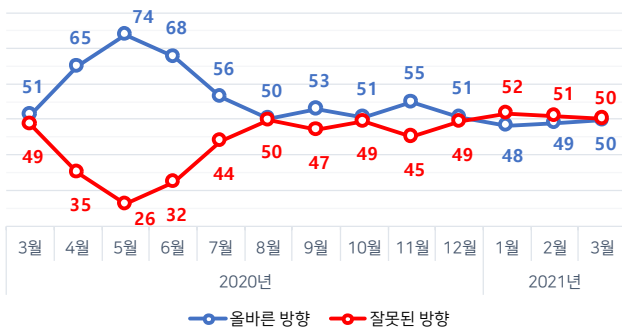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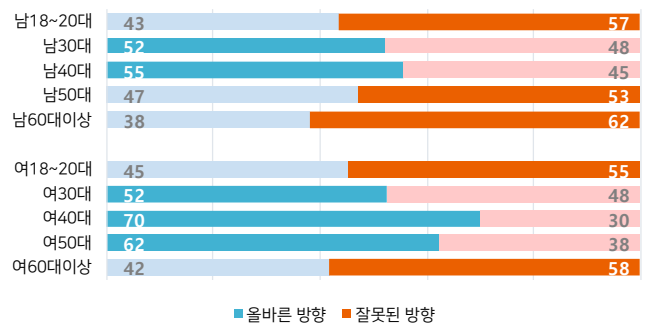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4개월 연속 긍정/부정 팽팽

-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두고 국민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임
 - 2021년 3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50% vs '잘못된 방향' 50%로 동일하게 나타남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여자 305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주부 계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 공히 50%로 동일한 계층은 화이트칼라 계층과 개인이익과 사회이익 중 중간을 선택한 계층 등임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60세대 △여자 18~20대, 여자60대 이상 △서울,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계층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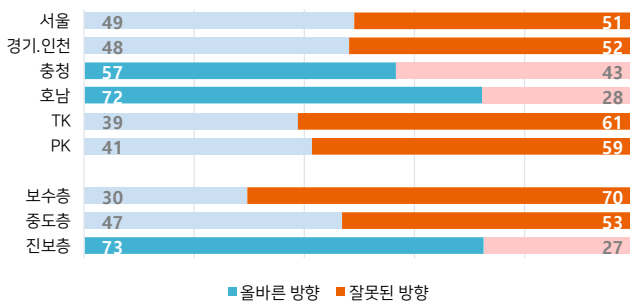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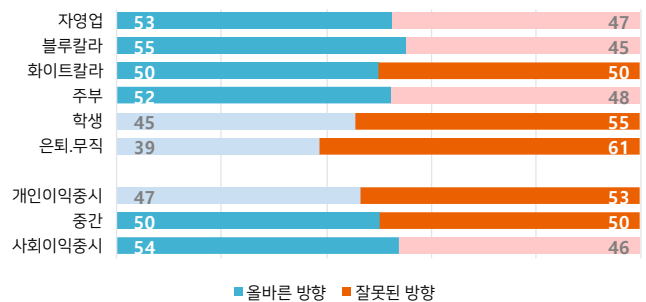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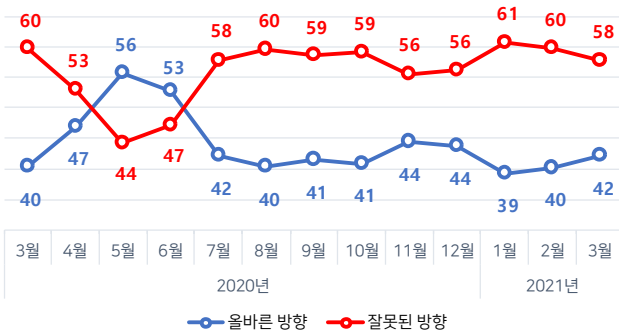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방향성을 두고 국민들은 2020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긍정/부정평가가 맞선 채 공방을 벌이고 있음
 -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불안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점과 원활한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본 조사는 기자회견 이후인 3월 5~7일 진행됨)
- ☑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부정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4월 지표는 부정평가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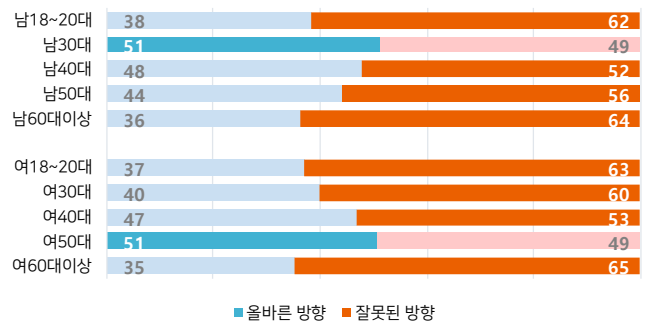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58%로 부정 평가 지속 우위

-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아홉 달 연속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평가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위를 기록함
 - 이번 3월 조사에서도 '잘못된 방향'이 58%로 '올바른 방향(42%)'보다 16%p 높게 나타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한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50대 △호남 △진보층 등임
 - 남자 30대와 여자 50대는 격차가 근소해,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은 호남과 진보층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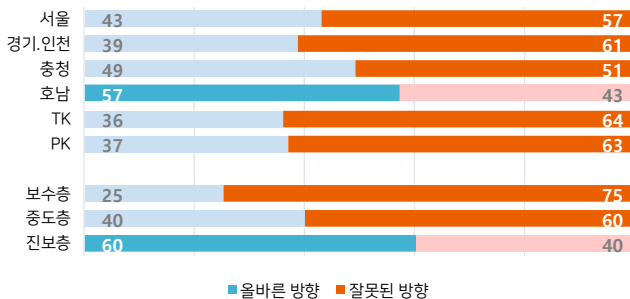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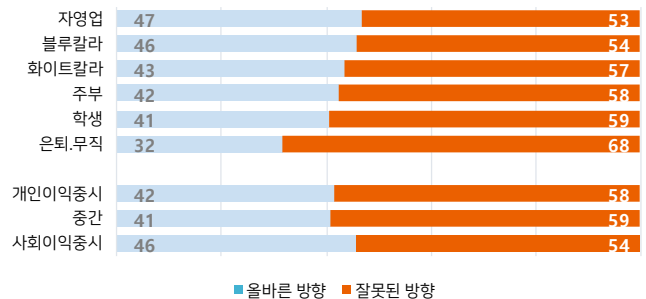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직업별,이직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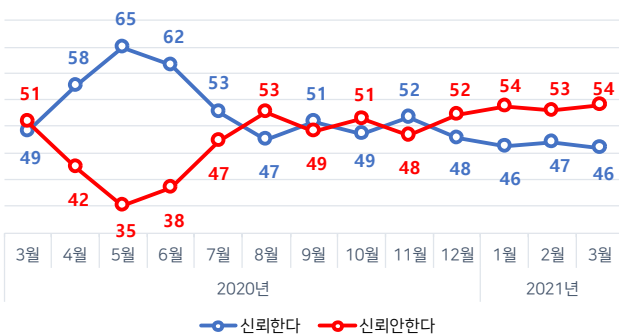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유례없이 장기화되면서 경제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 주목되는 점은 60대이상 고령층뿐만 아니라 18~20대 젊은 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매우 높다는 점임
 - : 특히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코로나19 경제난 극복 비전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현 정부가 LH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민심 악화'에만 주력하고 있어,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지표는 양호하지만, 거시경제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에 안주한 채 민생경제 회복을 방치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잠정)은 -1.0%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고,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OECD 발표)로 양호하지만 민생경제 회복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또한 LH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 악화의 근저에는 고통스러운 경제난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 없는 부동산 민심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 : 이러한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은 약할 것이라는 분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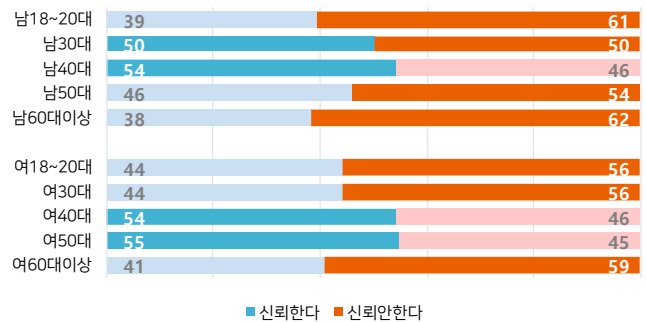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54%로 부정 우위

-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0년 12월부터 네 달 연속 부정평가 우위를 기록함
 - 2021년 3월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46%이고, '신뢰 안한다'는 응답은 54%로 조사됨
- 정부를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60세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 중간층 등임
 -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공히 50%로 팽팽한 계층은 △남자 30대 △학생 계층임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405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 계층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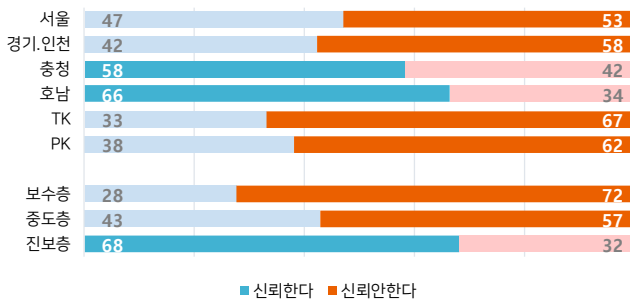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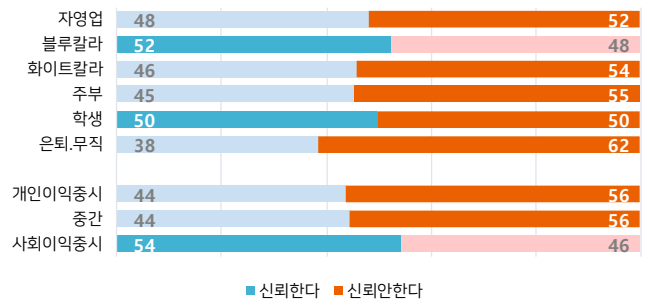
3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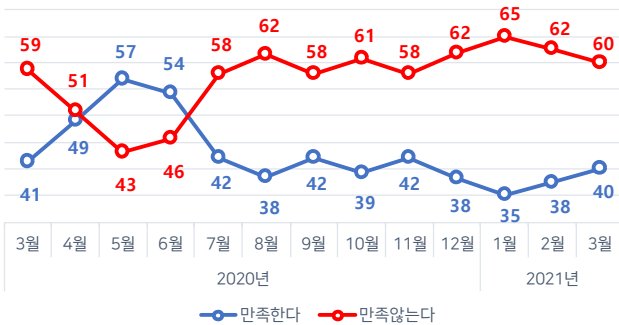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신뢰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 정책'임
- ☑ LH 신도시 투기 의혹은 정부 신뢰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신뢰도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 신뢰도 하락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보임
 - : 4월부터 6월까지, 즉 2분기에는 만65세 이상 일반국민 포함 총 1,200만명 접종이 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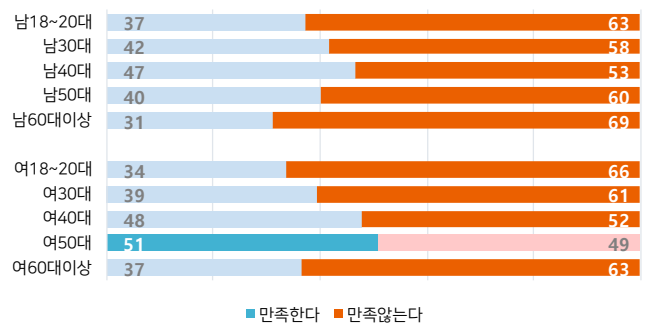
□ 정부정책 만족도 : 9개월 연속 '만족 않는다' 우위

- 정부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40%이고,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60%로 조사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2020년 7월부터 9개월 연속 우위를 기록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위를 보였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경기.인천,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임
-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50대 △충청,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여자 50대와 충청의 경우 공히 '만족한다' 51% vs '만족 않는다' 49%로 거의 같은 의견을 보여, 사실상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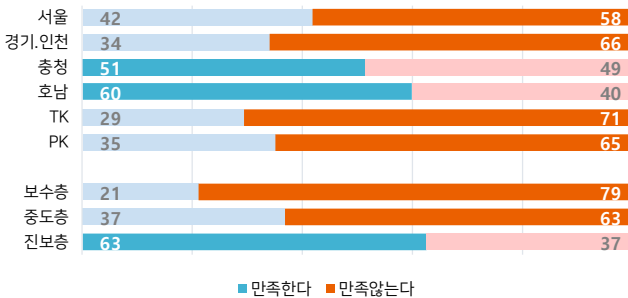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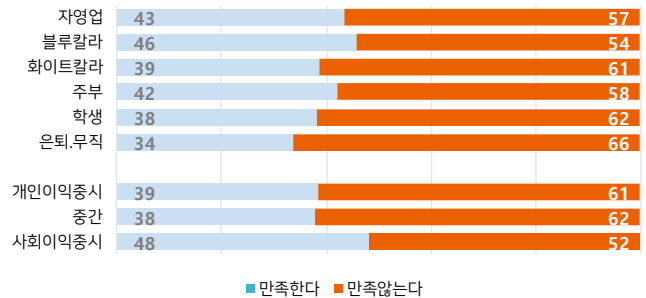
3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3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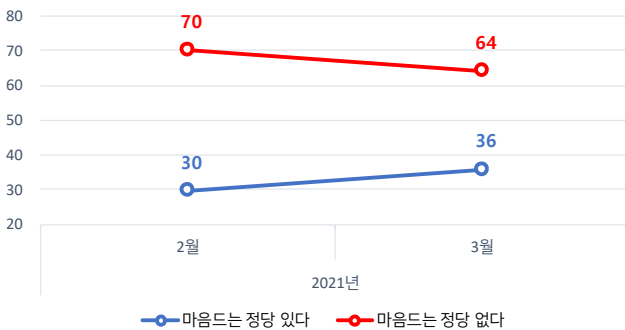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만족하는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치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만족 의견이 우세함
- ☑ 또한 국민 전체적으로 9개월 연속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을 볼 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현 정부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직시하고, 정책 우선 순위와 집중점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임
 - : 최근 2년간 권력기관 개혁에 주력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LH 투기 논란까지 불거짐
- ☑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정부신뢰도 및 정책만족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여당 후보 패배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현 정부 입장에서 집권 5년차로 마지막이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강력한 국정쇄신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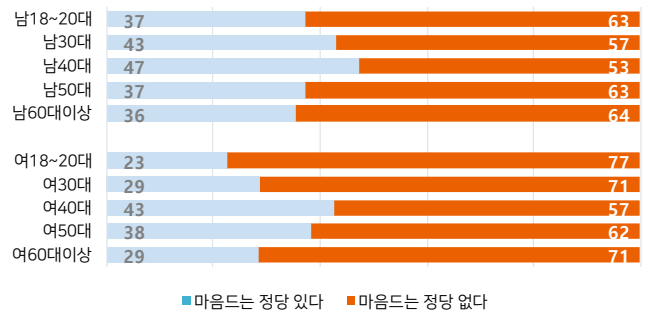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마음 드는 정당 '있다' 36% vs '없다' 64%

-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정당 존재 유무는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요즘 우리나라 정당을 돌아볼 때,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세요?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64%로 높게 조사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TK △보수층,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이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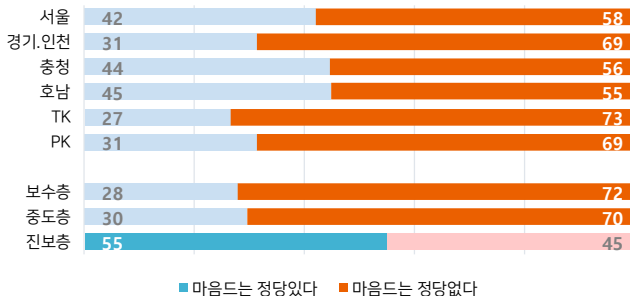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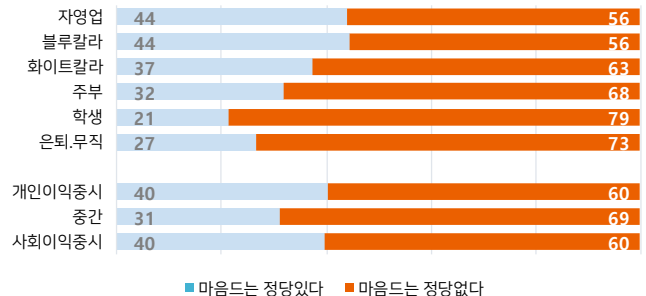
3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업종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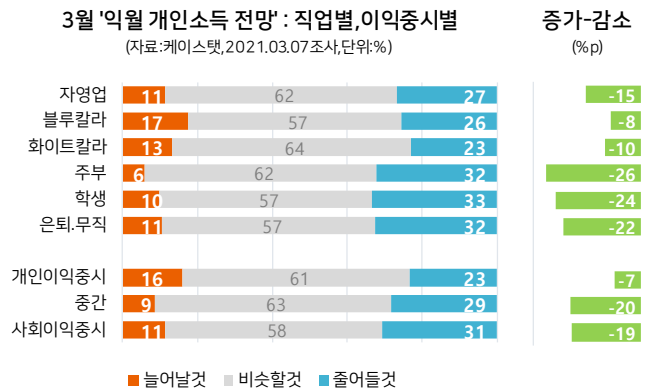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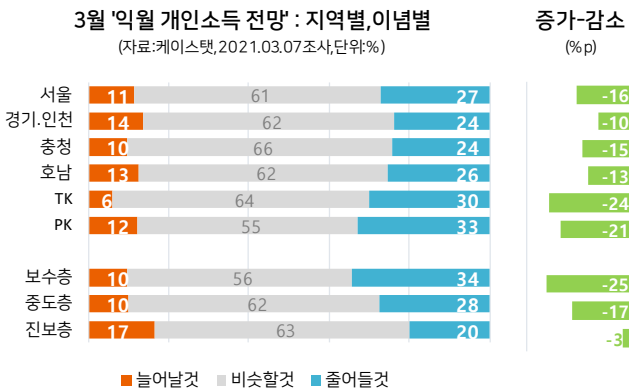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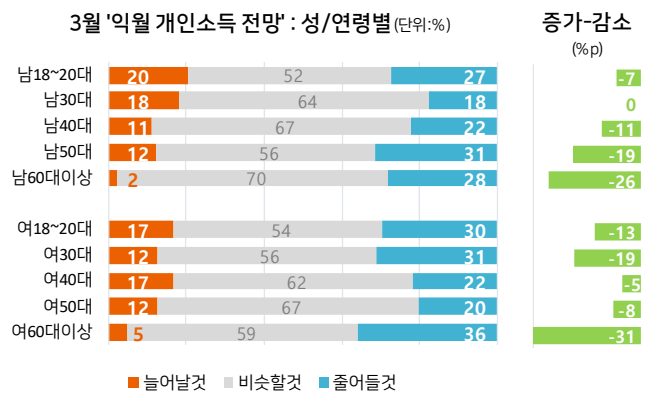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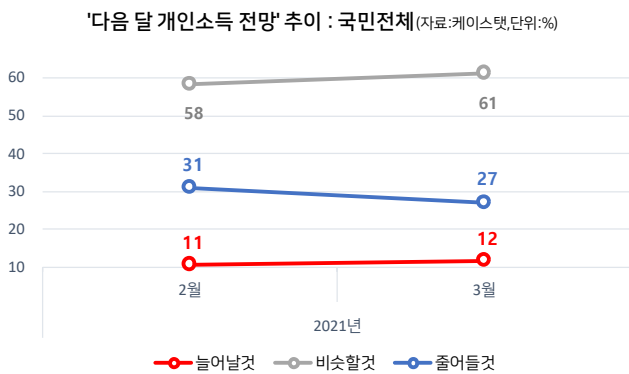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당호감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수층의 응답임
 - : 진보층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5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데 비해 보수층은 28%에 불과함
 - : 이는 보수층이 지금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 지역과 연령별로 살펴봐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연령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매우 낮음
 - : TK 27%, PK 31% / 60대이상 남성 36%, 60대이상 여성 29%
- ☑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케이스탯의 다른 조사에서도 동일함
 - : '정치적 갈등 유발 영향력'을 주요 주체별로 질문한 결과 총 8개 주체 중 '야당 정치인'이 2위로 부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수층과 60대이상 연령층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받음
 - :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3호 『정치적 갈등의식 집중 분석』에서도 나타남**
- ☑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지지도와 4.7 보궐선거 가상대결에서의 야권후보 우세 등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싫어서인 것으로 분석됨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지금보다 줄어듦' 높아

- 국민들은 다음 달 개인 소득이 지금보다 늘기보다 줄어듦 것으로 전망함
 - “다음 달 선생님 개인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세요, 줄어듦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지금과 비슷할 것 이다’는 응답이 61%로 높게 나타남
 -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은 12%에 그치고, ‘지금보다 줄어듦 것이다’는 응답은 27%를 기록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듦 것’을 뺀 차이는 -15%p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증가’에서 ‘감소’를 뺀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이익중시 중간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40대 △진보층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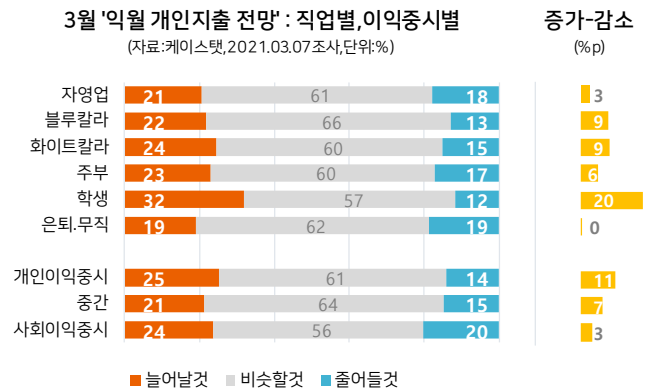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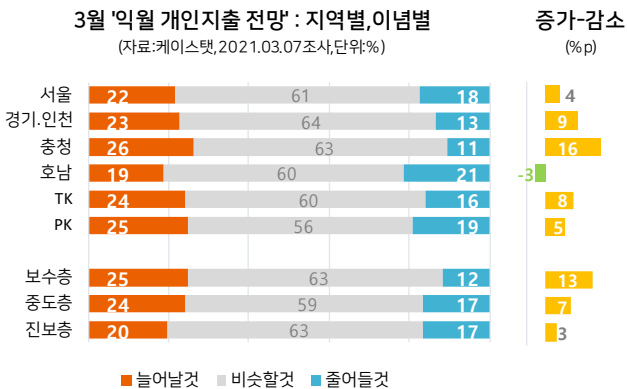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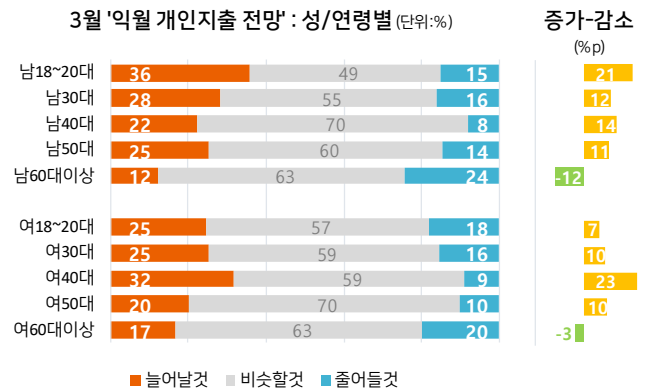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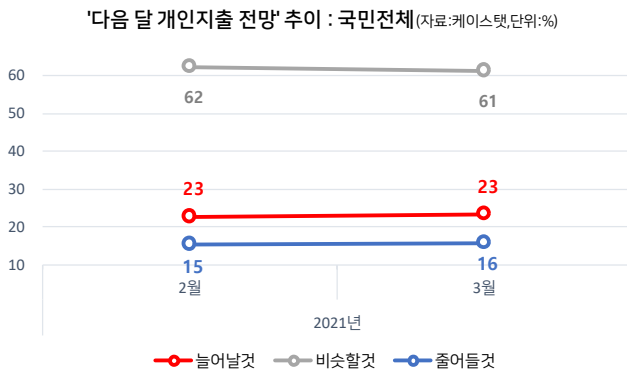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2021년에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코로나19 종식’과 ‘내 개인의 수입 증가’를 꼽은 바 있음 :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개인 소득 하락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1호 『신년특집 ②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사항』 참고
- ☑ 2월에 이어 3월에도 ‘다음 달 개인 소득’이 늘기보다 줄어듦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개인 소득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 것으로 보임
- ☑ 이로 인해 3월 말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논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됨 :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4일, 국회 본 회의 처리 예정인데, 이전에 비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빠진 국민들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적절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응답 많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23%로 '지금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16%)보다 높게 나타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8%p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증가-감소)가 플러스를 기록, 다음 달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18~20대 △여자 40대 △충청권 △학생 등임
-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 다음 달 지출 감소를 전망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호남 지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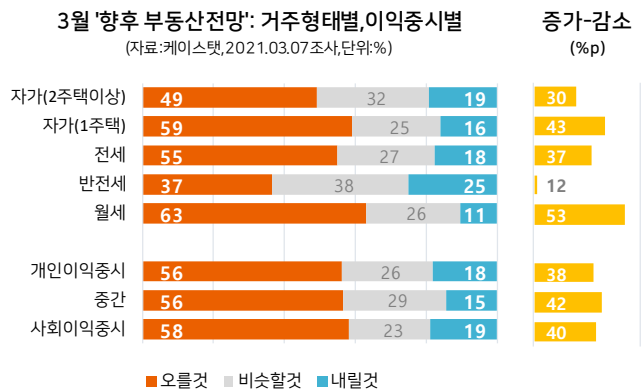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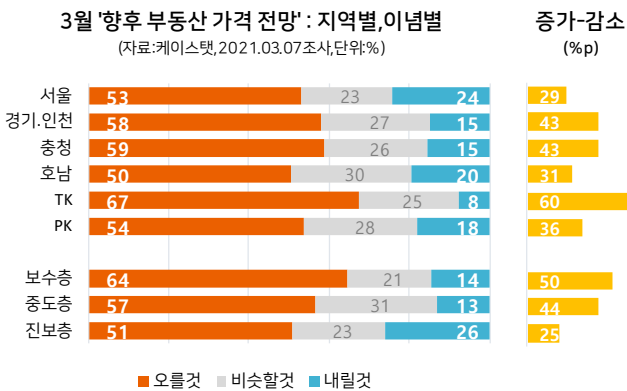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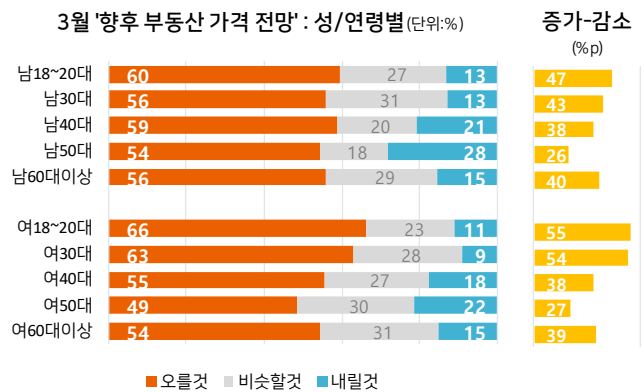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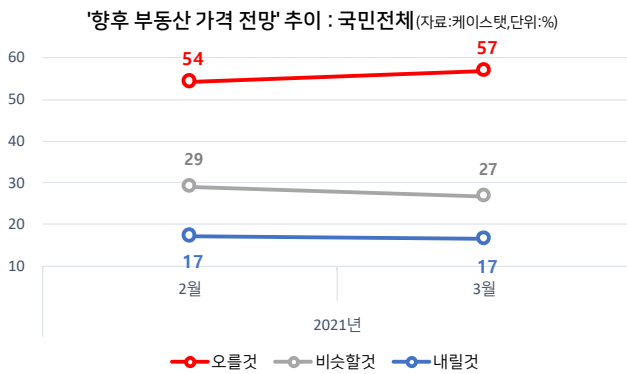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음 달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득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큰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18~20대 남자와 학생 계층이 큰 폭의 지출 증가를 예상함
- ☑ 소득 하락에 대해 지출 축소로 대응하는 계층은 60대이상 남녀와 호남에 그침
 - : 특히 60대이상 남녀는 큰 폭의 소득 하락을 예상하면서 지출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응답함
- ☑ 한편, 지출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그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층은 서울, TK, PK지역과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57%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국민들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함
 -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1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7%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차이(증가-감소)가 플러스를 기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충청권, TK △보수층, 중도층 △1주택 자가, 월세 거주자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50대 △서울 △진보층 △반전세 거주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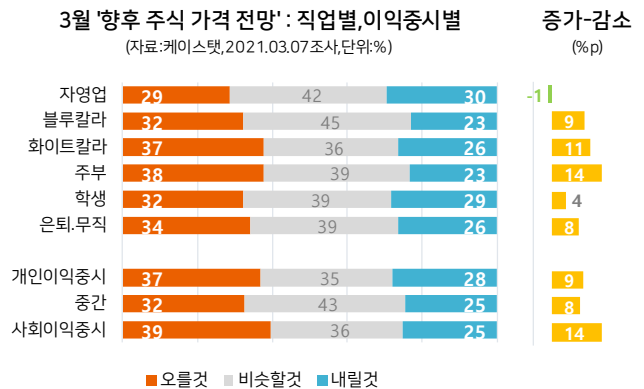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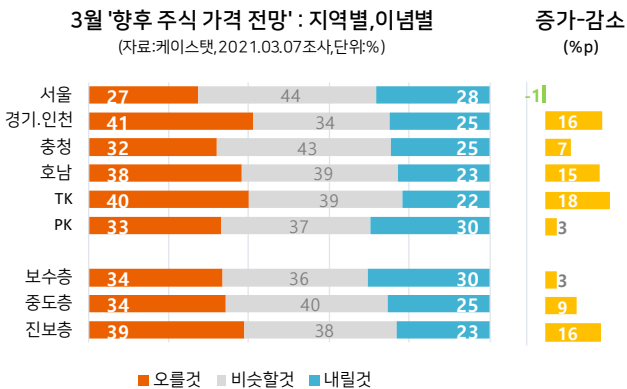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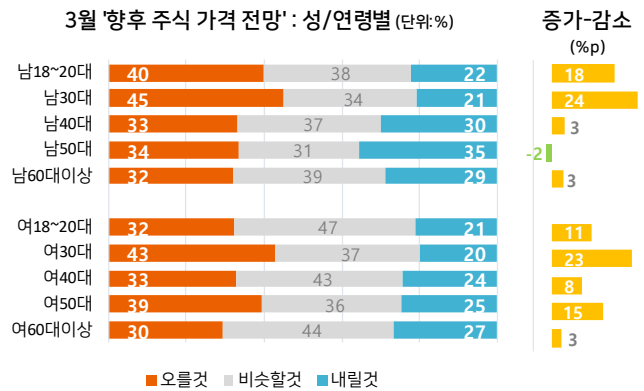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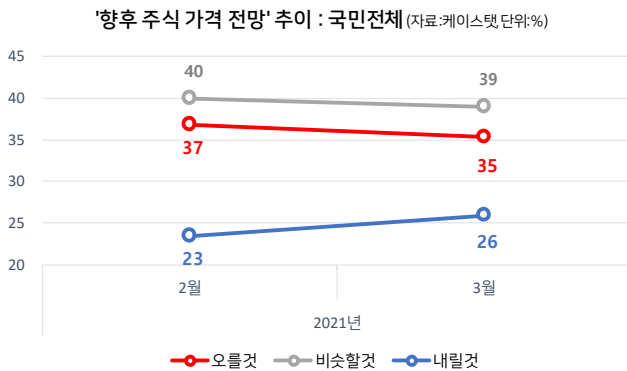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 3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2월 둘째주 (0.33%) 이후 매주 상승 폭이 줄어들
 - 3월 둘째주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도 0.15%를 기록, 한 달 전(0.22%)에 비해 하락함
- ☑ 국민적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 기대와 달리 부동산 가격 하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35% vs '내릴 것' 26%

- 향후 주식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지금보다 내릴 것(26%)'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9%이고, 전반적으로 지난 2월 조사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2030대 △여자 30대 △경기.인천, 호남, TK △진보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PK △보수층 △학생 등임
- 이에 비해 차이(오를 것-내릴 것)가 마이너스를 기록,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서울 △자영업자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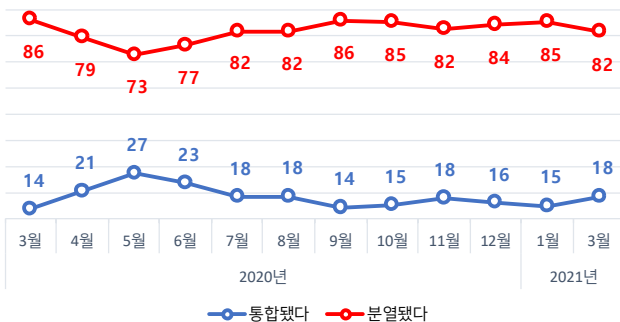
- ☑ 향후 주식 가격 전망에서 2030세대의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투자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 실제로 2020년 연령대별 개인주주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전년 대비,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함
 - : 30대는 74만367명이 증가해 1위를 기록했고, 20대는 68만9176명 증가로 2위를 기록함
- ☑ 2월 주식시장은 조정기를 겪으면서 다소 하락했으나 젊은 층 중심의 주식투자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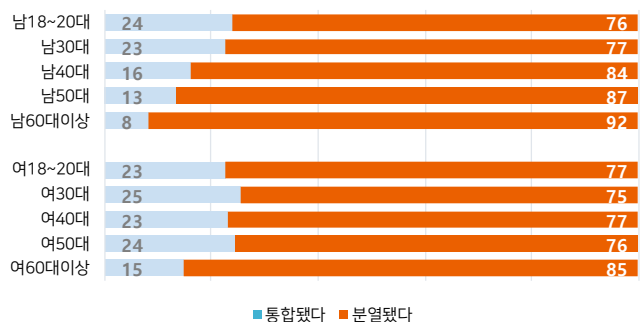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2%

- 국민 절대 다수는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분열됐다'는 응답이 82%로 절대적으로 높음
 - '통합됐다'는 응답은 18%에 그침
-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분열됐다'는 의견이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국민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이익중시 중간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통합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30대 △충청권 △진보층 △블루칼라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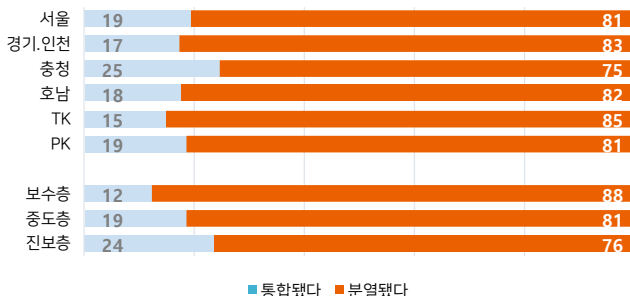
사회통합성 평가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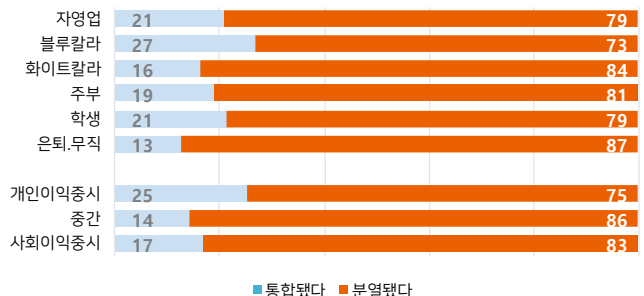
3월 사회통합성 평가: 성/연령별 (2021.03.07조사,단위:%)



3월 사회통합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사회통합성 평가: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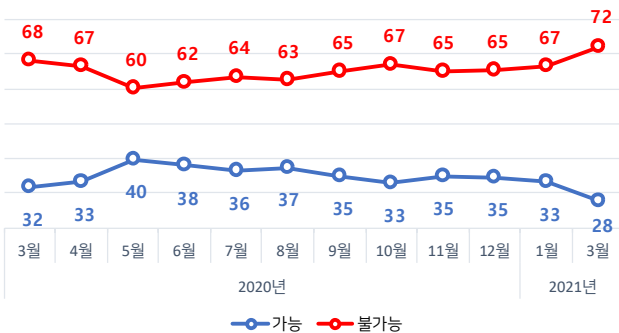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는 국민의견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채 고착되어 있음
- ☑ 2021년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로 이른바 '진영대결'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분열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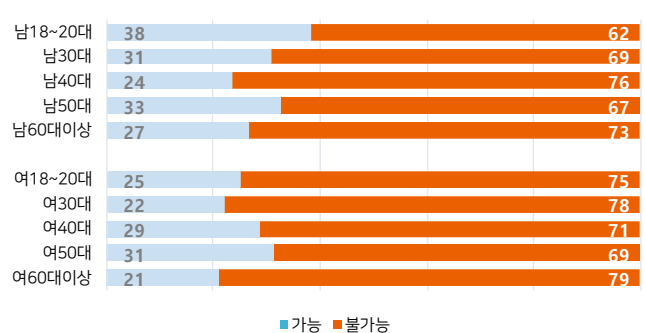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노력으로 '불가능' 72%

- 우리 사회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기록함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3월 조사에서도 개인 노력으로 계층 상승 '가능하다'는 응답은 28%에 그치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72%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이러한 인식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TK △보수층 △주부, 은퇴.무직자 △사회이외의 중시층 등임
-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50대 △여자 50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 △개인이외의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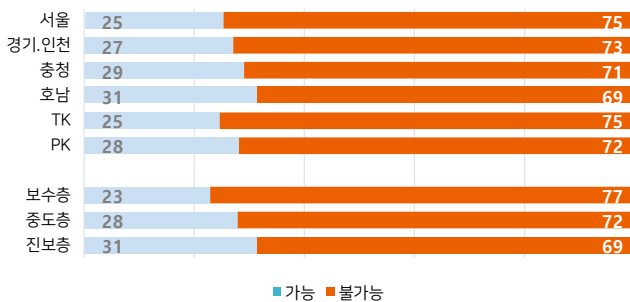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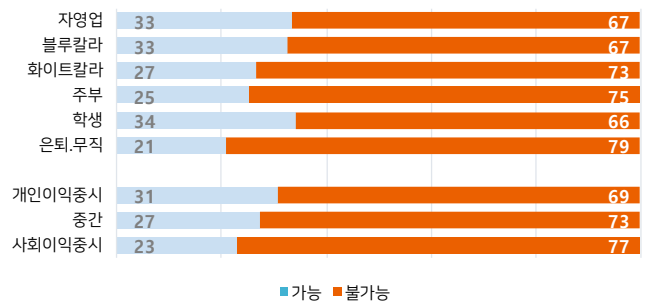
3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3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3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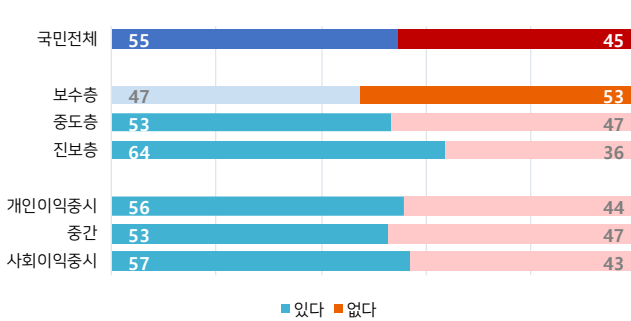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계층상승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비용 역시 격차가 더 벌어짐
 - : 2020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결과(통계청)를 보면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학생 중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60.1%로 전년보다 6.5%p 증가함
 -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격차는 5.1배로, 월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0만4천원이고,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9만9천원에 불과함
- ☑ 코로나19 종식 이후 특히 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지원 정책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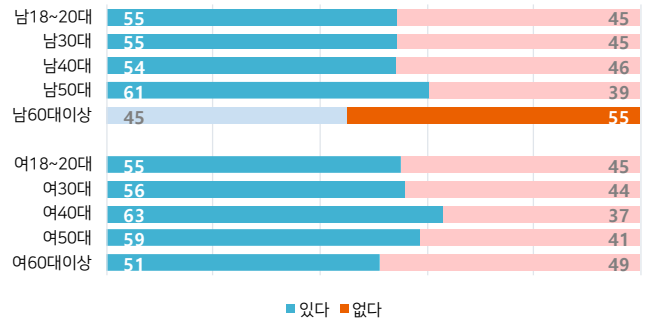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55% vs '없다' 45%

- 국민통합과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함
- 이러한 '보편적 가치' 유무에 대한 국민의견은 '있다'가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는 의견은 55%이고, '없다'는 의견은 45%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있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있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남자 50대 △여자 40대 △충청, 호남권 △주부 등임
-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남자 60대이상 △TK △자영업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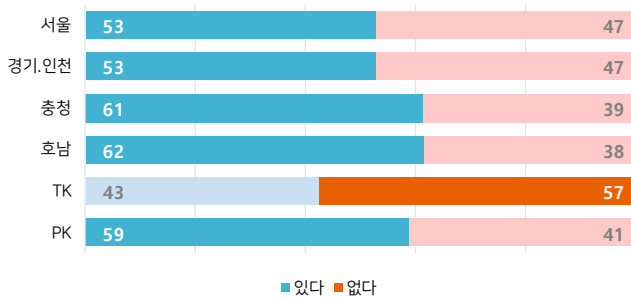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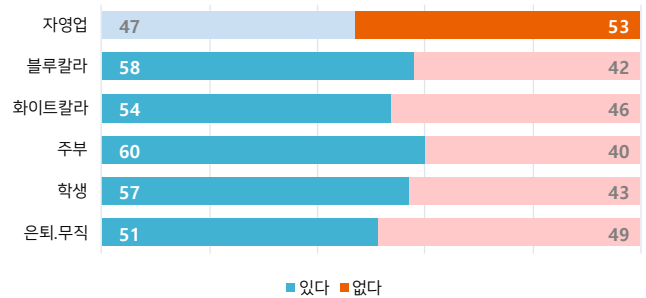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Kstat Point

- ☑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필요함
 - :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가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들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강조점이 달랐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로 기능함
- ☑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대, 즉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임
 - : 이번 조사에서 '있다'와 '없다'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증임
 - :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나뉜 채 진영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진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통합과 사회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임
-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4호] 발간 안내

24호는 『코로나19 사태 1년 평가』
라는 주제로 3월 2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